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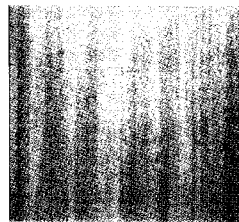
# interview

최종수  
과천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 서울공고 인쇄과 출신 과천문화원장 추사연구와 효문화에 큰 관심 갖고 사업진행



서울공고 인쇄과 3회졸업생인 최종수 과천문화원장. 그는 인쇄과를 졸업한 이후 인쇄사 사진제판실에서 근무하고, 육군 인쇄공창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인쇄와의 인연을 맺어왔다. 그리고 문화가 좋아 문화에 대한 사업을 벌이다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과천의 문화원장이 되었다. 최종수 원장을 만나 인쇄와 문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과천문화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과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평생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유년부터 노년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천문화예술센터', 음악 체육 미술 등의 교과수업 및 재량 활동을 활용해 학교 수업중 강의를 하는 '과천학교 문화예술 교육', 어르신문화프로그램(사랑매듭-기초반, 작품연구반)을 이용해 노인생활에 활력을 주는 '실버문화학교', 가정과 직장에서 원예를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사이버원예대학', 도무형문화제로 지정받은 무동답교놀이를 보존하는 '과천민속보존회', 땔나무를 해 왔던 과천 나무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천나무꾼놀이를 보존하는 '과천민속예술단', 매년 향토자료를 수집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관련 고서를 번역 출간하고 있는 '과천향토사연구회', 추사 김정희 선생을 연구하



과천문화원 직원들과 함께

는 '추사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잡지가 나올 즈음에는 끝났겠지만 5월 29일 서울랜드에서 1000여 명 정도가 모인 효문화축제를 벌입니다. 효를 주제로 한 추모제와 시조 짓기, 한시 시조창과 풍류놀이, 학생들의 그림 글짓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희미해져 가는 효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추사 김정희에 대한 연구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은 동아시아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인물로서 추사체를 창안하였고, 금석학, 경학, 실학, 문인화, 유불선 등 많은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178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856년 세상을 하직하신 추사 선생은 1824년 39세 때 부친 김노경이 당시 과천현 주암리 돌무깨에 과지초당을 지으면서 과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주도과 북청 유배가 끝난 후 작고하실 때까지 과천에 살면서 추사체와 함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과천과 관련하여 과노, 과파 등 15개 이상의 호를 사용하셨지요. 이러한 과천과 추사선생의 인연으로 추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2004년 4월에 추사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현재는 매년 추사연구 도서 발행, 학술대회, 전시회, 강독회, 연극 등의 10여가지 사업들을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천문화원에서는 9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 추사서체대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사대전이 다른 서예대회와 다른 점은 추사체를 한 장르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글과 한문, 문인화 등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희는 한글, 한문 외에도 추사체를 한 장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전국의 78개 문화원이 연합하여 사단법인 전국문화원연합회로 출발했으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현재 226개의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문화창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지원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사업의 지원자료 편간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수 원장은 과천문화원장 취임식 대신 청운양로원을 방문했다.  
 ▲ 응달말 11호에 게재된 최중수원장의 군대 제대기념 사진. ○안이 최중수 하사. 밑에 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이재환 태양씨앤피 사장  
 ▶ 과지초당에 대해 설명해 주는 최중수 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 중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교류사업이 있는데, 인쇄문화와의 교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록문화인 인쇄문화는 우리연합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문화단체를 활성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역으로 다른 문화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원 연합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어떻게 교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공고를 졸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1957년도에 서울공고 인쇄과에 입학해서 1960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인쇄과 3회 졸업생이지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은 없어진 남산동에 있는 국제인쇄문화(주) 사진제판실과 합동도서(주)에서 근무했습니다. 작업했던 것들은 영화, 잡지, 포스터들을 주로 인쇄했습니다. 군대도 기술을 살려 1961년 21살 때 육군 인쇄공창에 들어가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서울공고 인쇄과 선후배 13명이 한낱한시에 입대하고 무사히 제대했지요.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

재환 태양씨앤피 사장도 군대동기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회사도 다니고, 작은 사업도 해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990년경 상임위원을 맡아 과천문화원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1997년도에는 향토사연구회를, 2004년에는 추사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과천문화원과의 인연으로 2003년 과천문화원장에 선출된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지난 2008년도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공고 때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입학했을 때가 1957년도이니깐 6.25가 막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쇄과는 그래도 취직이 잘 된다고 해서 입학했습니다. 모두가 불타있던 시설들을 이제 막 복구했을 때여서 제대로 된 실습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활판 시설이 조금 있었고, 석판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선 식 자작업을 했지요. 어렵게 하면서도 바로 취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2학년 때인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최초로 명함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활판을 골라서 조그마한 명함기에 하나하나 딸가닥 거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졸업할 즈음에는 사진제판분야로 공부를 했습니다.



TIP

그래서 졸업한 후 취직을 했을 때도 사진 제판부에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보면 아주 천지개벽을 한 것이지요. 요즘이야 스캔을 통해 쉽게 사진을 작업하지만 모두 손으로 덧칠하고 지웠으니깐요.

가족에 대한 관계가 끈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인냐고 물으면 가족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 최씨 판윤공파 종중회장을 맡고 있다가 현재는 평도공파 종중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달말이라는 가족잡지를 매년 발행해 일년 동안 16명의 가족들에게 생긴 사소한 변화들을 모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족잡지를 만든 지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지금 12호를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 응달말은 손녀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달말이라는 제호는 경기도 과천시 막계1리 응달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응달말은 전주 최씨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서울대공원이 되면서 철거되었지요. 그 아쉬움을 담아 제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취미활동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취미입니다. 예전에는 골프도 하고 산행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디지로그'라는 책을 읽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아날로그 세대들이 디지털을 쫓아가지 못해서 해맸고 전통문화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책을 통해 아날로그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임남숙 차장sang@print.or.kr

## 디지로그

저자 이어령 | 출판사 생각의나무

### 디지로그



디지로그(Digilog)라는 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하나로 합친 말이다. 정보문화의 신개념 키워드로 디지로그를 제시한 것은 이어령이 처음이다.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 아날로그의 디지로그적인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이 책에는 바로 그 시대정신을 읽는 눈과 방향이 담겨 있다.

1권 '디지로그 선언'에서는 디지로그란 무엇을 말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이용 실태를 통해 디지로그의 현장을 담았다. 한국인, 한국 사회가 가진 디지털 아날로그적인 요소와 기질을 정리하고, 우리의 장단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왜 지금 디지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어 2권 '디지로그 전략'에서는 사회·문화 분석 개념들뿐만 아니라 국한되지 않은 '디지로그'만의 실제적 적용 전략과 이론을 제시한다. 한국인만의 블루오션으로써 '디지로그'의 경제적 응용 전략과 사회적 통합 기능, 문화적 창의력, 정치 선진화 전략 등 거대하고 근본적인 '디지로그'의 힘을 이용한 21세기 한국 사회의 전략을 개진한다.